

남북통합 행동의도에서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하는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박 찬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남북 관계에서 경험되는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통합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인구비례할당표집을 통해 대한민국 거주 일반인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응답자들의 한민족 정체성이 높고 국가 정체성이 낮을수록 남북 관계에서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회 정체성의 상호작용은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도를 각각 예측했다. 남북통일 및 통합에 관한 심리학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 및 장래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 정체성, 한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 집합적 죄책감, 남북통합지향 행동

* 본 논문은 통일연구원 '2019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사업'의 조사자료 중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음.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 2023,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개인은 다양한 집단이나 조직,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집단 또는 사회적 범주와 연합된 사회 정체성을 지닌다(Tajfel & Turner, 1986). 개인이 형성하는 사회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은 서로 동등한 위계 수준에서 교차되어 있기도 하고(예: 지역/성별), 하나의 범주가 다른 범주를 포섭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대한민국(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남한 국민으로서의 국가 정체성과 하나의 민족으로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한민족 정체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사회 정체성은 한민족 정체성이 국가 정체성을 포함하는 위계 관계를 이룬다(최훈석 등, 2019; Jung, et al., 2016).

Crisp과 Hewstone(2007)이 제안한 다중 사회 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속한 사회적 범주에 위계 구조가 존재할 때 사회적 정보처리에 있어서 복수의 범주가 가용하며, 이러한 사회 범주들이 조합되어 사고처리의 참조점으로 사용되는 양상에 따라서 외집단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남북 통일 및 통합에 관한 연구에서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사회 정체성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회 정체성 구조에 주목하여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남한) 정체성, 그리고 남북 통합지향 행동의도의 관계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한 국민들이 남북 관계에서 경험하는 집합적 죄책감의 매개역할을 조명함으로써 위계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사회 정체성과 연합된 심리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 간 맥락에서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집합적 죄책감은 집단 간 화해와 통합을 지향하는 태도 및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핵심 요인이다(Branscombe et al., 2002; Doosje et al.,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서 남한 국민들이 경험하는 집합적

죄책감의 역할은 그러한 개념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남북통일이나 민족 통합에 관한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남북 관계에 대한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남북통합지향 행동의도에 예측하는 모형을 최초로 제안하고, 전국규모 대표 표집에서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

복수의 사회 범주가 위계적 구조를 이루는 상황에서 하위범주 정체성이 우세할 때는 갈등 관계에 있는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이 나타나는 반면, 외집단과 내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공동범주화(superordinate categorization)는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촉진한다(이에 대한 개관은 Gaertner et al., 2016 참조). 이와 일관되게, 유연재와 김혜숙(2000)은 남한 대학생들에게 상위 공동범주인 한민족 정체성을 점화시키면 북한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호의적 태도가 유발된다는 증거를 보고하였다. 이는 실험에서 점화를 통해 한민족 정체성을 활성화하면 남한/북한이라는 내/외집단 구분이 아닌 상위 범주를 참조점으로 하여 외집단에 대한 평가가 유발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처럼 위계 관계에 있는 사회적 범주들 가운데 특정 범주를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만드는 상황 요인이나 동기 요인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집단에 대한 정보처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가?

Crisp과 Hewstone(2007)의 이론에 따르면 두 가지 범주가 위계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해당 위계 구조 내에 있는 사회 범주들을 동시에 참조하여 사회적 정보를 처리한다. 이로부터 추론해보면, 북한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도를 연구함에 있어서 한민족 정체성의 단일 효과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역동적인 관계를 탐색

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동-서독 맥락을 다룬 Kessler와 Mummendey(2001)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자들은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하위 범주(동독/서독)에 대한 동일시와 상위 범주(독일)에 대한 동일시가 동-서독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위 공동범주인 독일에 대한 동일시 수준만으로는 하위 집단 간 갈등을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에,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 각각에 대한 동일시 정도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하위 범주에 대한 동일시에 비해 상위 범주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하위 집단 간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서독 사람들 사이의 집단 간 갈등은 독일이라는 상위 범주에 대한 동일시의 단일 함수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에 대한 동일시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예측력이 증진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한국인들의 남북 통합지향 행동의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위계 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한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한다.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 정체성과 한민족 정체성 각각의 예측력을 분석한 선행연구(최훈석 등, 2019)에 따르면, 하위 범주와 연합된 국가 정체성은 남북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한 반면, 상위 범주와 연합된 한민족 정체성은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이로부터, 한민족 정체성이 강하더라도 국가 정체성 또한 강하면 집단 간 관계에서 상위 공동범주에 대한 동일시가 지니는 긍정적 효과가 경감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갈등 상황에서 한민족 정체성이 지닐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국가 정체성이 낮을 때, 높을 때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층 사회 정체성과 집합적 죄책감, 남북통합지향

행동의도의 관계

집합적 죄책감(collective guilt)이란 내집단이 외집단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해당 행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이 자신의 집단 소속에 기반하여 경험하는 도덕 정서이다(Branscombe et al., 2002). 이처럼 집합적 죄책감은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 간 맥락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집단-기반 정서라는 점에서 대인관계 맥락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와는 구분된다(Smith & Mackie, 2015). 또한 집합적 죄책감은 객관적인 가해 사건뿐만 아니라 내집단이 과거에 외집단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현재 외집단에 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관적 인식이나(Lickel et al., 2011), 내집단의 특권이나 상대적 우위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Iyer et al., 2003). 지위차이를 수반하는 집단 간 관계에서 발견되는 집합적 죄책감은 외집단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 행동을 조형하는 방향으로 접근 경향성을 조형하며, 특히 한반도 상황처럼 고질적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 간 맥락에서 갈등 해소 및 화해를 촉진하는 핵심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Bar-Tal, 2007).

집합적 죄책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집합적 죄책감의 발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내집단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구성원들이 내집단의 긍정성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집합적 죄책감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우세하게 나타난다(Branscomb et al., 2002; Doosje et al., 1998). 예를 들어,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높은 구성원들은 외집단과의 관계에서 집합적 죄책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수용하지 않거나 내집단의 잘못에 관한 정보의 신뢰도를 폄하하고(Doosje et al., 2006), 내집단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특징을 보인다(Miron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보면 흥미로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으로, 국가(남한) 정체성

이 강할수록 북한에 대한 남한의 가해 사실 또는 그와 관련된 주관적 지각이 개인의 사회 정체성에 큰 위협이 되고, 그에 따라서 집합적 죄책감을 회피하려는 동기도 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 정체성이 약한 개인은 북한 사람들을 내집단(한민족)이 아닌 외집단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남한 정체성이 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죄책감 회피 동기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한민족 정체성이 강한 경우에는 위와는 다른 추론이 가능하다. 즉, 한민족 정체성이 강한 개인은 북한 사람들을 상위 공동범주에 포함된 내집단으로 지각하고, 그에 따라서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Sullivan 등(2013)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자들은 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외집단인 이라크에 입힌 피해를 부각시킨 조건보다 내집단인 미국에 입힌 피해를 부각시킨 조건(예: 막대한 전쟁비용, 미군 사상자, UN과의 관계악화, 국제사회의 비난)에서 참가자들이 미국의 침공을 덜 합리화하고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음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내집단의 잘못을 용인하지 않는 사고에 의해 매개되었다. 이는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내집단의 행위가 외집단이 아닌 내집단에 입힌 피해를 인식할 때 집합적 죄책감이 강하게 유발됨을 시사한다. Sullivan 등(2013)의 연구가 위계관계에 있는 사회 정체성 구조를 수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를 통해 남북 관계 맥락에서 한민족 정체성과 집합적 죄책감의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만약 한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북한을 내집단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크다면, 남한이 북한에 입힌 피해는 같은 민족에 대한 가해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집합적 죄책감의 경험에 있어서 국가 정체성과 한민족 정체성이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리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한민족 정체성 수준과 남북 관계에서 경험하는 집합

적 죄책감의 관계를 국가 정체성 수준이 조절한다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가설 1: 국가 정체성이 낮을수록 한민족 정체성과 집합적 죄책감의 정적 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집단 간 관계에서 집합적 죄책감이 갈등 해소와 화합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많은 연구에서 지지 증거가 확보되었다(이에 대한 개관은 Branscomb & Doosje, 2004 참조). 전형적으로, 집단 간 관계에서 내집단의 가해 행위로 인해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낄수록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발현된다(Lickel et al., 2005). 또한 미국 내 백인들이 백인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지각함에 따라 경험하는 집합적 죄책감(white guilt)은 흑인 우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Iyer et al., 2003; Swim & Miller, 1999). 칠레에서 이루어진 종단연구(Brown et al., 2008)에서는, 칠레 인구의 다수를 이루는 비토착민들이 토착민인 Mapuche에 입힌 피해(예: 영토 침략, 고유 문화 훼손, 인종 차별)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집합적 죄책감이 Mapuche를 위한 보상정책 지지 태도를 8주 후(연구 1)와 6개월 후(연구 2)의 시점까지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추론해보면, 남한 사람들이 남북 관계에서 경험하는 집합적 죄책감이 다양한 단면에서 북한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행동의도를 예측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 1에서 상정한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남북통합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조절된 매개가설을 도출하였다(가설 2: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남북통합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집합적 죄책감이 매개한다).

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기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IRB no. 관리4050-38(2018.5.31)).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1,3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남성 652명, 여성 648명, 평균연령 42.7세). 조사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사업(통일연구원, 2019)의 일환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측정 도구

예측 변수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Hogg와 Hains(1996)의 사회 정체성 척도를 남북 관계 맥락에 맞게 수정한 문항들(최훈석 등, 2019; Jung et al., 2016)을 사용했다. 한민족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4개 문항(예: “귀하는 한민족에 대해 얼마나 애착을 느끼십니까”, “귀하는 한민족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을 사용하였다(1 = 전혀 아니다, 9 = 전적으로 그렇다, Cronbach's α = .89). 국가 정체성은 한민족 정체성 측정 문항에서 대상 집단만 수정하여 측정하였다(Cronbach's α = .91). 집합적 죄책감은 Doosje 등(1998)이 사용한 문항들 가운데 남북 관계 맥락에 적용하기 적합한 3개 문항을 선별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다(예: “나는 우리사회가 북한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볼 때 죄책감이 든다,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 전적으로 동의한다, Cronbach's α = .66). 자료 분석에서 예측변수들은 모두 해당 문항들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준거변수

남북통합을 지향하는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남북통일 및 화해에 관한 선행연구(박주

화 등, 2019)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도와 한반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행동의도를 조사에 포함시켰다. 외집단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행동은 외집단에 대한 공감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간 갈등 해소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Cehajic et al., 2016),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도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 및 수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Hameiri 등(2018)의 연구에서 총 4개 문항을 선별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구성하였다(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뉴스를 볼 때,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한다”, “남북 갈등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영화나 책을 읽어볼 용의가 있다”, 1 =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6 = 전적으로 동의한다, Cronbach's α = .81).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유일한 방법이 한국의 경제적 지원이며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3개 문항(예: “위와 같은 상황이 현실화 된다면 귀하는 남한의 평균적인 삶의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을 사용하였다(0 = 전혀 포기할 수 없다, 10 = 전부 포기할 수 있다, Cronbach's α = .94). 자료 분석에서 준거 변수들은 모두 해당 문항들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 국내 선행연구에서 정치적 보수성향은 남북통일 및 화해에 관한 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었기 때문에(예: 박주화 등, 2019), 응답자들의 정치성향을 통제하기 위해 Skitka 등(2002)의 진보-보수성향 단일문항(“귀하는 자신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을 사용했다(1 = 매우 보수, 7 = 매우 진보).

또한 질문지 마지막에 인구통계 문항을 포함시켜 응답자들의 성별, 연령을 측정하고 이후 모든 분석에서 정치성향, 성별, 연령을 통제하였다.

결 과

한민족 정체성 점수를 평균 중심화한 값은 예측 변수, 국가 정체성 점수를 평균 중심화한 값은 조절 변수, 그리고 집합적 죄책감 평균을 매개 변수로 설정한 후 준거 변수 각각에 대해서 PROCESS 3.4.1(Hayes, 2017; 모형 8)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준거 변수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시에는 원자료에서 무선 표집 5,000번을 통해 모수 추정에 사용하였고 신뢰구간(CI)은 95%로 설정하였다. 모형 검증에 앞서,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어($r = .73$)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VIFs ≤ 2.27 로 다중공선성 문제(VIF=2.5)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참조: Johnston et al., 2018).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고, 가설 1과 가

설 2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상호작용에 따른 집합적 죄책감(가설 1)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집합적 죄책감을 예측하는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R^2 = .10$, $F(6, 1293) = 24.66$, $p < .001$. 구체적으로, 한민족 정체성이 집합적 죄책감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b = 0.21$, $t(1293) = 8.35$, $p < .001$, 95% CI [0.16, 0.26], 국가 정체성은 집합적 죄책감을 부적적으로 예측했다, $b = -0.15$, $t(1293) = -6.11$, $p < .001$, 95% CI [-0.19, -0.10]. 보다 중요하게,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b = -0.04$, $t(1293) = -4.50$, $p < .001$, 95% CI [-0.05, -0.02]. 국가 정체성 평균을 기준으로 ± 1 표준편차에서 한민족 정체성의 단순 기울기를 분석한 결과, 국가 정체성이 높은 경우(+1 SD) 한민족 정체성의 회귀 계수는 $b = 0.15$, $t(1293) = 5.73$, $p < .001$, 95% CI [0.10, 0.20]인 반면, 국가 정체성이 낮은 경우(-1 SD) 회귀 계수는 그보다 큰 $b = 0.26$, $t(1293) = 9.06$, $p < .001$, 95% CI [0.21, 0.32]로

표 1. 측정 변수들 간 상관과 각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N=1,300)

	1	2	3	4	5	6	7	8
1. 성별	1							
2. 연령	.03	1						
3. 한민족 정체성	-.06*	.27**	1					
4. 국가 정체성	-.02	.27**	.73**	1				
5. 집합적 죄책감	.00	-.02	.16**	.01	1			
6. 북한 이해의도	-.07*	-.03	.27**	.12**	.45**	1		
7. 경제적 희생의도	-.14**	.07**	.29**	.19**	.40**	.40**	1	
8. 정치적 지향성	.06*	-.13**	.02	-.03	.21**	.23**	.11**	1
평균		42.68	5.57	6.05	3.33	3.55	3.91	4.12
(표준편차)		(14.05)	(1.49)	(1.56)	(0.95)	(0.89)	(2.24)	(1.13)

주. * $p < .05$, ** $p < .01$

표 2.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남북통합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집합적 죄책감의 조절된 매개분석 결과

예측 변수	집합적 죄책감					북한 이해의도					경제적 회생의도				
	B	SE	p	95% CI		B	SE	p	95% CI		B	SE	p	95% CI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하한	상한
한민족 정체성	0.21 ^{***}	0.03	.00	0.16	0.26	0.09 ^{***}	0.02	.00	0.05	0.14	0.30 ^{***}	0.03	.00	0.19	0.41
국가 정체성	-0.15 ^{***}	0.02	.00	-0.19	-0.10	0.01	0.02	.54	-0.03	0.05	0.03	0.05	.54	-0.07	0.14
한민족 정체성 x 국가 정체성	-0.04 ^{***}	0.01	.00	-0.05	-0.02	0.01	0.01	.17	-0.01	0.02	-0.04 [*]	0.02	.04	-0.07	-0.01
집합적 죄책감						0.37 ^{***}	0.02	.00	0.33	0.42	0.85 ^{***}	0.06	.00	0.73	0.97
성별	-0.01	0.05	.82	-0.11	0.09	-0.12 ^{**}	0.04	.01	-0.20	-0.03	-0.62 ^{***}	0.11	.00	-0.83	-0.40
연령	-0.00	0.00	.92	-0.01	0.01	-0.01 [*]	0.01	.03	-0.01	-0.001	0.01	0.01	.23	-0.01	0.01
정치성향	0.17 ^{***}	0.02	.00	0.13	0.22	0.11 ^{***}	0.02	.00	0.07	0.15	0.09	0.05	.07	-0.01	0.19
모형 적합도	R ²	MSE				R ²	MSE				R ²	MSE			
	.10 ^{***}	0.81	.00			.26 ^{***}	0.59	.00			.24 ^{***}	3.83	.00		
국가 정체성 수준에 따른 한민족 정체성의 조건부 간접효과															
				-1 SD		0.10	0.02		0.07	0.13	0.23	0.04		0.16	0.30
				M		0.08	0.01		0.05	0.10	0.18	0.03		0.12	0.23
				+1 SD		0.06	0.01		0.03	0.08	0.13	0.03		0.08	0.19

주. B = 비표준화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CI = 신뢰구간, MSE = 평균제곱오차, * $p < .05$, ** $p < .01$, *** $p < .001$.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일관되게 참가자들의 국가 정체성이 낮을수록 한민족 정체성과 집단적 죄책감의 정적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각 준거변수에서 집합적 죄책감의 조절된 매개 효과(가설 2)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 및 집합적 죄책감이 북한 이해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R^2 = .25$, $F(7, 1292) = 63.17$, $p < .001$, 집합적 죄책감은 북한 이해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b = 0.37$, $t(1292) = 15.67$, $p < .001$, 95% CI [0.33, 0.42].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 -0.013 , 95% CI [-0.022, -0.006]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와 일관되게 한민족 정체성이 높고 국가 정체성이 낮을수록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에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도에서도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 및 집합적 죄책감이 경제적 희생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R^2 = .24$, $F(7, 1292) = 57.58$, $p < .001$, 집합적 죄책감은 경제적 희생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b = 0.85$, $t(1292) = 14.02$, $p < .001$, 95% CI [0.73, 0.97].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 -0.03 , 95% CI [-0.05, -0.01]로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와 일관되게 한민족 정체성이 높고 국가 정체성이 낮을수록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에 따라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도가 강함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한 국민들의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남북 관계에서 경험되는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남북통합을 지

향하는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조절된 매개경로를 확인하였다.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분리와 단절로 점철되어온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남북통일 및 화해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서 국가 정체성의 효과를 배제한 채 한민족 정체성의 단일효과를 탐색하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남북 관계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주로 두 정체성 중 하나의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거나(예: 유연재, 김혜숙, 2000), 한 연구에서 각 정체성의 개별적인 효과를 다루었다(예: 최훈석 등, 2019). 그러나 본 연구는 국가 정체성과 한민족 정체성의 역동적 관계를 반영함으로써 사회 정체성과 남북 갈등에 관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관찰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남북 통합을 지향하는 행동을 준거로 하여 연구모형의 수렴적 증거도 관찰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통일 관련 연구들은 상위 공동범주화나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경험 등이 북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로 다루었다(참조: 박주화 등, 2019). 그러나 집단 간 갈등 맥락에서 발생하는 집단-기반 정서로서 집합적 죄책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Cehajic et al., 2016; Smith & Mackie, 2015) 통일에 관한 학술 및 실용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본 연구는 남한 국민들이 경험하는 집합적 죄책감이 남북통합에 지향된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관찰한 최초의 시도로서 의의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민족 및 국가에 연합된 사회 정체성의 하위 요인들(Roccas et al., 2006)을 세분화하여 두 정체성의 상호작용 양상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정체성의 하위 요인으로서 애착(attachment)은 집단 간 관계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는 반면 찬양(glorification)은 집단 간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Roccas et al., 2006)에서

보면, 내집단에 대한 애착은 집합적 죄책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찬양은 부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계적 사회 정체성 구조가 존재하는 남북 관계에 적용하면,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을 구성하는 애착과 찬양 요인 간의 상호작용이 집합적 죄책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 방면의 연구를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국가정체성에 비해 한민족 정체성과 준거변수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관찰되었음을 고려하여, 애착과 찬양 요인에 대해서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구성요인들에서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여 모형확장을 시도하는 작업도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 통일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의도를 조사한 것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남북 갈등상황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들이 남북한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들 중 일부이다. 특히 집단 간 관계에서 고지위 집단은 내집단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Nadler, 2002), 본 연구 결과는 북한에 비해 고지위인 남한 국민들이 경험하는 집합적 죄책감이 그러한 경향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발견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 연구 결과가 남북 관계에서 한민족 정체성의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국가 정체성을 낮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 정체성 약화는 오히려 국민들의 응집성을 저해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을 철회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담론과 정책, 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연구 의의와 시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기보고 질문지를 활용한 횡단 연구

의 한계를 지니며, 남북 관계에서 국민들이 경험하는 집합적 죄책감을 보다 정교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 도구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준거변수를 확충하여 남북화해와 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행동 단면을 연구에 포함시켜 통합적인 개념모형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보완과 확장이 필요하다.

저자 소개

박찬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대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관심사는 이중 정체성과 집단 간 갈등, 공감 등이 있다.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식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변형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박주화, 이민규, 최훈석, 권영미 (2019).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 유연재, 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45-59. doi: 10.21193/kjspp.2019.33.4.003
- Bar-Tal, D. (2007).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 1430-1453.
<https://doi.org/10.1177/0002764207302462>
- Branscombe, N. R., Doosje, B. (Eds.) (2004). *Collective guil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nscombe, N. R., Doosje, B., & McGarty, C. (200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group-based guilt. In D. M. Mackie & E. R. Smith (Eds.), *From prejudice to intergroup emotions: Differentiated reactions to social groups* (pp. 49-66).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Brown, R., González, R., Zagefka, H., Manzi, J., & Čehajić, S. (2008). Nuestra culpa: Collective guilt and shame as predictors of reparation for historical wrongdo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75-90.
doi: 10.1037/0022-3514.94.1.75
- Čehajić-Clancy, S., Goldenberg, A., Gross, J. J., & Halperin, E. (2016). Social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intergroup reconciliation: An emotion regulation perspective. *Psychological Inquiry*, 27, 73-88.
doi: 10.1080/1047840X.2016.1153945
- Crisp, R. J., & Hewstone, M. (2007). Multiple social categorization.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ume 39, pp. 163-254).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doi: 10.1016/S0065-2601(06)39004-1
- Doosje, B., Branscombe, N. R., Spears, R., & Manstead, A. S. R. (1998). Guilty by association: When one's group has a negative his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872-886. doi: 10.1037/0022-3514.75.4.872
- Doosje, B., Branscombe, N. R., Spears, R., & Manstead, A. S. R. (2006).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group-based guilt: The effects of ingroup identific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9, 325-338.
doi: 10.1177/1368430206064637
- Gaertner, S. L., Dovidio, J. F., Guerra, R., Hehman, E., & Saguy, T. (2016). A common ingroup identity: Categorization,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In T. D. Nelson (Ed.),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2nd ed., pp. 433-454). New York, NY: Psychology Press.
- Hameiri, B., Nabet, E., Bar-Tal, D., & Halperin, E. (2018). Paradoxical thinking as a conflict-resolution intervention: Comparison to alternative interventions and examination of psychological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4, 122-139.
doi: 10.1177/0146167217736048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Hogg, M. A., & Hains, S. C. (1996).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295-309. doi: 10.1037/0022-3514.70.2.295
- Iyer, A., Leach, C. W., & Crosby, F. J. (2003). White guilt and racial compensation: The benefits and limits of self-focu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17-129. doi: 10.1177/0146167202238377
- Johnston, R., Jones, K., & Manley, D. (2018). Confounding and collinearity in regression analysis: A cautionary tale and an alternative procedure, illustrated by studies of British voting behaviour. *Quality & quantity*, 52, 1957-1976.
doi: 10.1007/s11135-017-0584-6
- Jung, J., Hogg, M. A., & Choi, H.-S. (2016).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37, 341-350.

doi: 10.1111/pops.12252

- Kessler, T., & Mummendey, A. (2001). Is there any scapegoat around? Determinants of intergroup conflicts at different categorization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090-1102. doi: 10.1037/0022-3514.81.6.1090
- Lickel, B., Schmader, T., Curtis, M., Scarnier, M., & Ames, D. R. (2005). Vicarious shame and guilt.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8*, 145-157. doi: 10.1177/1368430205051064
- Lickel, B., Steele, R. R., & Schmader, T. (2011). Group-based shame and guilt: Emerging directions in research.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 153-163. doi: 10.1111/j.1751-9004.2020.00340.x
- Miron, A. M., Branscombe, N. R., & Biernat, M. (2010). Motivated shifting of justice standard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768-779. doi: 10.1177/0146167210370031
- Nadler, A. (2002). Inter-group helping relations as power relations: Maintaining or challenging social dominance between groups through helping. *Journal of Social Issues, 58*, 487-502. doi: 10.1111/1540-4560.00272
- Roccas, S., Klar, Y., & Liviatan, I. (2006). The paradox of group-based guilt: Mod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nflict vehemence, and reactions to the in-group's moral vio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698-711. doi: 10.1037/0022-3514.91.4.698
- Skitka, L. J., Mullen, E., Griffin, T., Hutchinson, S., & Chamberlin, B. (2002). Dispositions, scripts, or motivated correction?: Understa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in explanations for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470-487.
- Smith, E. R., & Mackie, D. M. (2015). Dynamics of group-based emotions: Insights from intergroup emotions theory. *Emotion Review, 7*, 349-354. doi: 10.1177/1754073915590614
- Sullivan, D., Landau, M. J., Branscombe, N. R., Rothschild, Z. K., & Cronin, T. J. (2013). Self-harm focus leads to greater collective guilt: The case of the US-Iraq conflict. *Political Psychology, 34*, 573-587. doi: 10.1111/pops.12010
- Swim, J. K., & Miller, D. L. (1999). White guilt: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for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500-514. doi: 10.1177/0146167299025004008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2nd ed., pp. 7-24). Chicago, IL: Nelson-Hall.

1 차원고접수 : 2022. 02. 06.

수정원고접수 : 2022. 11. 17.

최종게재결정 : 2023. 01. 20.

The Mediating Role of Collective Guil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 Identity, National Identity, and Reconciliatory Behavior Intentions in the Context of the Two Koreas: A Test of Moderated Mediation

Chan Park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tested a moderated mediation model that stipulates an interaction of ethnic identity and national identity in predicting South Koreans' feelings of collective guilt about the current situations involving the two Koreas, which in turn predicting their intentions to engage in reconciliatory behaviors. A total of 1,300 South Korean adults participated in a survey via a stratified sampling method. Results indicated, as expected, that the stronger the ethnic identity, the more likely the participants reported collective guilt, and this relationship was stronger for individuals who are low in national identity compared to those who have strong national identity. We also found support for the predicted moderated mediation effect in predicting the participants' intention to learn about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the outgroup (i.e., North Korea) on the current North-South situations and their willingness to sacrifice the current economic advantages of South Korea as a means to resolve th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research on issues related to the two Korea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identity, ethnic identity, national identity, collective guilt, reconciliatory behavior